

쌀값 폭락 부추긴 정부 생산량 예측

3년간 매년 15만t 이상 예측 실패 농민들, 올해도 10배 이상 오차 예상 정밀한 통계 작성 등 대책 마련 시급

정부가 통계청의 쌀 생산량, 소비량 조사 등 국가 기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쌀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측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쌀값을 20만원대로 떠받치겠다는 '시그널'도 보이지 않는다. 허술한 통계까지 맞물리면서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농민들 불만이다.

농민들은 끝없는 산지쌀값 하락으로 쌀 수급 관련 통계조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통계 작성 등 새로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정부의 쌀 생산량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국내 쌀 생산량, 소비량 등이 예측을 크게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를 인용, 지난해 쌀 생산량을 370만 2000 t으로 예측하고 수요량은 360만 7000 t으로 추정, 쌀 9만 5000 t이 남을 것으로 수급 안정대책을 세웠지만 올해 20만 t을 시장 격리하고도 10월 말 15만 t의 재고쌀이 넘쳐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같은 사례가 지난 2021년부터 반복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2021년의 경우 쌀 수요량을 361만 4000 t으로 산출한 반면, 같은해 쌀 생산량을 388만 2000 t으로 예측하고 27만여 t이 초과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정부 예측과 달랐고 지난 2022년에도 376만 4000 t 생산, 360만 9000 t 수요가 예측되면서 쌀 15만 5000 t이 과생산됐지만 현장은 온도 차가 컸다.

쌀 수급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쌀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정부가 약속한 80kg 당 20만원 선은 커녕 수확기 이후 18만원 선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쌀 수급대책의 기초 데이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 벼베기 수확 현장을 찾아 벼 작황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 되는 통계 자료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올해 역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쌀 예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사이에 큰 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을 365만 7000 t으로 전년(370만 2000 t)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은 매년 작물재배면적 조사, 표본필지(연 3100여개) 추출, 현지 방문조사(필지당 2곳), 표본 채취, 탈곡, 재현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량을 예상한다.

하지만 산지 농민들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최대 20% 가까이 줄어 들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 통계청이 예상한 쌀 생산량 감소 예상치가 10배 이상 오차를 기록한 것이다.

김봉식 전국쌀협회 광주전남본부 정책위원장은 "국내 최대 곡창지인 전남만 하더라도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15~2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쌀 등숙기(8월말~10월초)까지 폭염이 잇따랐고, 폭염 이후 비가 내리는 기상 여건이 반복되면서 벼멸구 피해도 예년보다 크게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쌀 수급대책 마련에 있어서 쌀 소비량 예측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꼽힌다.

그나마 표본 추출에 이어 현지 답사 및 실제 쌀 수확 과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생산량조차도 오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소비량 조사는 그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하지만 통계청은 현실적으로 소수의 표본 가구를 제외한 국민 대다수가 매 끼니 쌀 소비 의향이 바뀌고, 개개인마다 쌀 소비량이 차이를 보이는 등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한 요소들을 모두 감안할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쌀 소비량 예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민들은 쌀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통계 자료와 차이가 발생하면서, 기초조사부터 잘못된 쌀 수급대책을 세우다 보니 매년 수십만 t의 쌀을 시장 격리하면서도 쌀값 하락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소비량 조사 표본 부족 등 조사자료에 대한 한계점은 최근 몇 년간 인지하고 있다"며 "통계청 조사 결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쌀값 안정대책 마련해라”...성난 농민들 거리로 거리로

천막농성·상경집회 등 잇따라

전남 농민들이 아우성이다. 띄어벌에도, 집중호우에도, 벼 농사 잘짓는데만 관심을 기울인 것밖에 없는데, 정성만큼 제 값을 받기는 커녕 쌀값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

전남지역 쌀 농가 농민들이 이달 아스팔트로 나서는 이유다. '국가가 버린 농업', '무관심한 전남 농정'에 대한 항의다.

3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 농민회 소속 농민들은 오는 9일 쌀값 안정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상경집회에 나선다.

농민들은 생존과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라는 점을 내세워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대

책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산지 쌀값(80kg)은 지난 25일 기준 18만 2900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0만 4568원)에 견줘 10.6% 하락했다.

최근 5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인 평년가격(19만 1022원)과 비교하면 4.6%(8122원)나 떨어졌다. 20kg짜리로는 4만 5725원 수준이다. 정부가 내놓은 '쌀값 안정화 방안'도 전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양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쌀값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지가 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가 20만 원대로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쌀값을 떠받치겠다는 '시그널'을 보이지 않으면서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형편이다.

농민들은 11일에는 전남 도청 앞에 쌀값 보장을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13일에는 지역별로 쌀값 폭락 근본문제 쌀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지역 농민대회도 열어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20일에는 서울로 상경,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전남도는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 ▲수입 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가을 보약 ‘늪은호박’이 골칫거리라니

면역력 강화 등 효과...바른 보관·요리법으로 건강 챙기자

시골에선 보통 할아버지가 기거하는 곳이 동네 사랑방이자 가을에 수확한 농산물의 저장 창고 역할을 했다. 할아버지 방에는 수확한 고구마는 물론 방앗간에서 갓 쪄낸 쌀 등이 쟁여져 있기 마련이었다. 창고 등 저장공간이 부족한데 그 이유가 있었겠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농산물의 적절한 저장온도를 고려한 선인들의 지혜다. 이 특별한 공간의 주인공이 여럿 있지만, 문과 가까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자리 잡은 황금빛을 자랑하는 ‘늪은호박’은 빠트릴 수 없는 존재다.

며칠 전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는 도시농부를 만나 호박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됐다. 예전엔 밭 여기저기에 호박을 심었는데 골칫거리라는 것이다. 애호박이었을 땐 호박 전도 하고 무침도 해 먹었지만, 그 수가 많다 보니 다 못 먹고 할 수 없이 놔두었더니 늪은호박이 됐고 이제 처분이 곤란할 정도라는 것이었다. 주리는 사람도 많지 않아 밭에서 썩히기 일쑤라고 했다.

요즘이야 이런 대접을 받지만, 사실 늪은호박은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던 시절에도 보관하기에 좋고 영양소가 풍부해 사람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대표적인 구황작물 중의 하나였다. 한의학에서 ‘가을 보약’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호박죽이나 호박엿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며, 우려서 차로 마시거나 호박씨를 강정, 식체에 곁들여 먹기도 하는 등 쓸모 많은 식재료다.

특히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면역세포인 NK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베타카로틴 함유량은 단호박이나 적색 파프리카보다 늪은호박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타민A와 비타민C도 많이 함유돼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늪은 호박은 수분이 많고 칼륨 함량이 높아 이노자용과 해독작용이 뛰어나 전통적으로 수분 조절에 효과적인 채소로 애용된다.

늪은호박은 부기 제거가 필요한 사람이나 회복기의 환자, 노인, 산모들에게도 특히 좋다고

한다. 늪은호박 속 당분은 소화와 흡수가 잘 돼 위장이 약한 사람도 먹을 수 있으며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도 적합하다. 또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심근경색의 위험을 낮춰주기도 한다.

이렇듯 쓸모 있는 늪은호박이 이름 탓인지 홀대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황당하면서도 서운한 느낌이 들었다. 그 다양한 쓸모가 사라진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먹거리가 풍족해지고 식재료가 다양화하면서 구황작물 중의 하나인 늪은호박 역시 서민들의 눈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식재료를 보관법을 몰라 구매했거나 주저하거나 사 놓고도 상한 채로 내버려 둔다면, 농가나 소비자 모두에게 큰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농산물은 저장이나 보관법이 작물을 잘 키우는 것 만큼 중요한데 늪은호박도 예외가 아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농작물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저장하기 좋은 상태의 것을 골라야 하는데 늪은호박도 마찬가지다. 상태가 좋은 늪은호박을 고르려면 껍질이 단단하고, 노란 담황색인 것이 좋다. 크기는 크고 윤기가 흘러야 하며, 표면의 골이 깊고 꼭지가 움푹 들어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통째로 보관할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이리저리 옮기지 말고 한 자리에 두어 보관해야 하고, 온도가 높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썰어서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다. 호박을 반으로 잘라 씨와 속을 긁어낸 뒤 껍질을 칼로 깎아낸 다음 주황색 속살을 적당한 크기로 썬다. 이것을 체에 밭쳐 햇볕에 널어 말린다. 햇볕에 말리면 호박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강화되고 단맛까지 증가해 더 좋은 상태가 된다.

농사를 짓다 보면, 키우는 것 못지않게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치를 깨달아 가기 마련이다. 모든 농작물이 다 그렇겠지만, 천덕꾸러기가 된 늪은호박이 주는 이런 시사점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

/bigkim@kwangju.co.kr

“마늘·양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 보험료 90% 지원

전남도가 신청 기한에 맞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폭설, 냉해, 집중호우, 저온, 우박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등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남도, 대서 등 난지형 마늘은 오는 8일까지, 한지형 마늘은 29일까지, 양파는 22일까지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농가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전국 평균보다 12% 높은 64%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중풍재활 / 인지기능 수술후 재활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한의 집중치료
침, 뜸, 부항, 약침, 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직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인증기간 | 2020.10.19 - 2024.10.18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1129-8-63255호